

자살 택하기 전 그대 안의 연꽃 보세요

해의불교칼럼

최근 여러 유명인들의 연이은 자살소식은 듣는 이 모두의 마음을 시리게 한다. 누가 어디서 뭘 하다 삶을 마감하던 죽음이란 슬픈 일이며, 영생이니 천국이니 제 아무리 그럴싸하게 둘러 붙여도 우울하긴 마찬가지다.

특히 괴로움에 치여 스스로 택한 죽음은 살아남은 이들을 상심과 상실감의 수렁으로 떠민다. 다음은 미국의 불자인 제럴드 포드 도반이 '삶이 고달파서 아주 거두시려나오?'란 제목으로 9월 16일 국제 사이버전법지에 올린 글을 발췌 편역한 것이다.

'붓다께서는 모든 사람이 마치 연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들숨 진흙탕에 뿌리를 내린 연은 눈에 띄지 않게 점점 자라 올라 이윽고 물위에 뜨고 청초한 연꽃을 피워내지요. 붓다께서는 우리도 연처럼 온갖 어둠과 혼란이 뒤엉킨 진흙탕을 헤치고 벗어나 마침내 맑고 밝은 깨우침의 꽃을 피워낼 수 있다 하셨어요. 나와 너, 우리 모두는 연꽃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에 따르면, 한 조각의 포테이토티프도 무량

억겁 이어진 인과 연으로 생겨나지요. 포테이토티프는 감자에서 비롯하며, 감자는 해와 땅과 비와 농부의 구슬땀에서 비롯합니다. 그리고 씨감자는 또 다른 감자를 키워 새로운 인연을 엮어가지요. 삶의 매 순간, 매 숨결은 하나같이 경이롭고 독특한 터라, 그 어느 것도 똑같이 반복되지 않아요. 그대의 삶이 제아무리 고달파도 고귀한 삶의 순간을 함부로 자르고 그토록 감사한 숨결을 틀어막는 실수를 저질러선 안 됩니다. 그대가 슬픔과 분노와 공포에 짓눌리는 그 순간에도 그대안의 연꽃은 자라나고 있어요. 그대에게 차가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순간에도 그대안의 연꽃은 여전히 피어나고 있어요. 매순간, 매 숨결마다 그대안의 고귀한 연꽃망울을 가없는 사랑으로 아끼고 돌봐줘야 해요. 그대안의 연꽃은 무량억겁 모든 인과 연이 얽히고설킨 함께 키워주는 거예요. 그대안의 연꽃은 그대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임을 결코 잊지 마세요.'

자살을 생각하는 이들을 위해 이 글을 쓴 범우님의 간절한 마음이 새록새록 전해져 온다. 그럼 이번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출판부에서 발간한 불교사전 중 불

교와 자살에 관한 부분을 잠시 살펴보자. '불교에서는 자살이 전혀 고통의 해결 방안이 못되는 헛된 행위라 본다. 윤회를 믿는 불교의 교의에 따르면, 자살은 당면 문제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내세의 고통으로 연장할 뿐이다. 또한 자신을 포함하여 중생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는 5계의 첫 번째인 불살생을 거스르는 것이다. 자살은 갈망과 집착에서 비롯한다. 자살은 사납고 거친 카르마를 완회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더 처참하게 악화시킬 뿐이다. 인간은 자살로써 고통을 회피하거나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탈출할 수 없다. 자살은 내세에 끔찍한 업장으로 이어져 더욱 가혹한 고통으로 이어진다.'

자살에 대한 냉정한 원론적 해석이다. 그런데 이보다 현실적인 자살대처방안을 제시한 예도 있다. 전통적 불교국가인 태국의 창마이 대학의 정신의학과에서 발표한 '자살예방을 위한 불교적 접근방식' 중 일부 요약이다.

'첫째, 자살에 대한 불교적 교리를 충분히 이해시킬 것. 둘째, 내세와 윤회에 대한 믿음을 지니게 할 것. 이 둘은 불교의 교리적 설득을 통해 자살을 막자는 뜻이

다. 셋째, 승려를 대상으로 자살과 내세에 대하여 폭넓은 교육을 시킬 것. 이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승려의 상담능력을 키우려는 뜻이다. 넷째, 정신불안장애의 초기증세를 적시에 포착해 적절한 정신심리전문가에 치료를 의탁할 것. 이는 즉 안수기도회나 마귀를 내쫓느니 하는 사이비돌팔이 노릇을 치우고 신속히 전문가에게 맡기라는 뜻이다. 다섯째, 각종 자살 도구에 접근을 통제하고 자살충동 및 방조의 환경을 차단할 것. 여섯째, 약물남용 및 음주를 엄격히 통제할 것. 일곱째, 무책임한 소문과 보도를 통제할 것. 이 세 가지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일련의 자살케이스와 무관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참선을 널리 보급하고 지속적으로 지도할 것 등이다.'

특히 자살의 경우, 사후 애도(哀悼) 못잖게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서구 선진사회에서는 참선이 우울증, 자살충동억제 등 정신신경질환의 치료요법으로 이미 일반화되고 의료보험 등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다.

번역: 성휴 스님
출처: Buddhism 8 Level, Chiangmai Medical, Oxford Press: Buddhism 등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브루스 조엘 루빈

보편사고 넘어 영적 세계 탐구

1990년대 초 못사람의 영혼을 뒤흔들었던 영화 '사랑과 영혼'을 기억하실 것이다. 망령, 유희를 뜻하는 'Ghost'란 원 제목의 이 작품을 쓴 브루스 조엘 루빈 도반은 불교철학과 문화를 깊이 연구한 학자풍의 불자다. 이 작품으로 1991년 오스카 최우수 각본상을 받은 그는 1943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출생했다.



브루스 조엘 루빈

1960년대에 뉴욕대학교 인디애나 대학에 다닌 전형적인 히피 제너레이션의 문인이자 영화인인 그는 '뉴욕타임스' 평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인근으로 활동무대를 옮겼다. 1986년 그곳에서 그의 첫 각본인 '지독한 친구(Deadly Friend)'가 웨스 크레이번 감독의 연출로 개봉된다. 그 작품은 한 착한 청년이 자신의 죽은 여자친구를 되살려낸다는 한마디로 만화 같은 영화

1991년 '사랑과 영혼'으로 오스카 최우수 각본상 불교철학 연구 관심 높이는 영적 신드롬 일으켜

론 중 일부다. '그는 변함없이 삶과 죽음에 초점을 고정한다. 그는 죽음을 바로 앞두고 뭔가를 깨닫는 임사인지(臨死認知), 그리고 죽은 뒤에 이어지는 사후세계에 대해 늘 탐구한다. 그는 인간이 지닌 보편사고와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적세계를 탐색한다. 또 그는 영화제작자 겸 각본작가로서 단순히 이야기를 나열하는 따분하고 진부한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예술성과 흥행성의 동시성공을 거뒀다. 그는 인간세계의 현실적 감성의 플로트, 그리고 영혼세계의 환상적 영성을 절묘하게 조화시킨다. 이 같은 독창적 업적은 그가 젊은 시절 그리스, 인도와 네팔, 티베트 등지를 다닌 일종의 구도행각이 빚어낸 결정체다.' 그는 1970년 영화 '69 디오니서스(Dionysus in 69)'를 브라이언 디 팔마와 공동연출하며 영화계에 첫발을 내딛고 '엄마, 안녕(Hi, Mom!)'에서는 그의 조감독으로 일한다. 그 후 NBC방송의 영상편집조수로 자리를 바꾼 그는 지중해 파로스섬부터 히말라야 산맥 오지까지 두루 누비며 자아발견과 영적 가치를 추구한다. 네팔 불교사원에서 수개월간 수행 정진하던 그는 미 CIA공작원이라 함의로 네팔정부로부터 48시간 내 출국명령을 받는다. 수행은 중단됐지만 짧은 기간 그가 터득한 심오한 영적 체험은 후일 그의 작품 활동에 결정적인 밑거름이 된다. 뉴욕으로 돌아온 그는 휘트니박물관에서 보조

가. 게다가 흥행실패는 그의 패배감만 되려 더 부추긴다. 풀리는 것이란 없이 사랑이 딱 막힌 고통의 세월이 4년이나 계속된다. 그러던 그에게 마침내 꿩하고 별들 날이 찾아온다. 1990년 직전부터 '사랑과 영혼' '야곱의 계단(Jacob's Ladder)' 두 작품의 각본을 동시에 쓰게 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내심 바라던 부제작자까지 떠맡는 행운이 거꾸 닥친다. '사랑과 영혼'은 어느 선남선녀의 못 다한 사랑, 죽음, 영적 교감을 그린 순정만화와 같은 환타지 애정영화다. 그렇듯 단순하고 다소 유치해 보이는 플로트가 뜻밖에 순수의 2억 달러 남짓의 대히트를 치고 그간 우울한 좌절의 늪을 허우적대던 그에게 오스카 각본상까지 안겨준다. 앞서 말한, '지독한 친구'란 못난 꽃(因)이 있었기에 '사랑과 영혼'이란 탐스런 열매(果)가 맺힌 것이다. 그런 까닭에 작든 크든 사람이 열과 성을 다하여 하는 일 가운데 '헛수고'란 결코 없다. 후일 그는 '사랑과 영혼' 및 '야곱의 계단'의 원소재가 사실은 '바로도 되돌'이란 티베트의 <사자(死者)의 서>이며 이를 자신이 나름대로 재해석했다고 밝힌다. 이 책은 8세기 티베트불교의 고승 파드마 삼바바가 펴낸 108개의 저서 중 하나라 전한다. 사후세계를 경험하고 환생한 라마들의 증언을 통해 사후의 영혼이 겪게 되는 현상, 그리고 해탈의 길을 가르치는 내용이다. <계속> 성휴 스님

국제불교영화축제 열린다 멕시코서 10월 29일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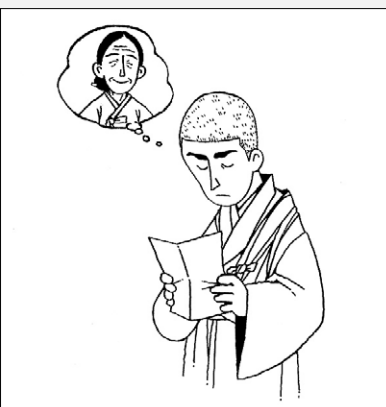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국제 불교영화축제(IBFF)가 개최된다. 지금까지 아시아, 유럽, 미국 등지에서 개최됐던 동 영화축제가 주로 스페인어권이자 가톨릭국가들이 밀집한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불교영화축제는 멕시코의 사마야재단, 미국의 불교영화협회 및 프라노파아 불교재단 등이 공동주관한다. 축제기간에는 49개 이상의 불교에 관련된 영상작품이 심사되며 역대 불교영화 시리즈의 시사성과 불교영화 발전을 위한 분야별 세부토론 및 심포지엄 등도 동시 개최된다.

출처: BCTN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Walking dictionary

걸어다니는 사전



Once there was a well-known Sanskrit scholar priest who was young and much talented. Being so proud of his academic achievement, he delivered lectures all around. His mother heard about this and wrote him a letter: "Son, I do not think you became a devotee of the Buddha because you became a walking dictionary. There is no end to knowledge, glory and honor. I wish you would stop this lecture business. Shut yourself up in a little temple in a remote part of the mountain. Devote your time to meditation and attain true awakening."

산스크리트어에 능통하고 재능이 넘치는 젊은 학승이 있었다. 자신의 학구적 업적에 잔뜩 자부심을 지닌 그는 여기저기 사람들을 가르치러 돌아다녔다. 그 얘기를 들은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편지를 썼다. "내 아들아, 나는 네가 '걸어 다니는 사전'이 됐다 해 참된 불제자가 된 걸로 생각하지 않는다. 지식이나 명성은 끝이없을 게 없단다. 이 어머니는 네가 남을 가르치는 일을 이제 그만뒀으면 한다. 부디 심산유곡의 암자에 은거하여라. 그리고 참선 정진하여 참된 깨우침에 이르길 바란다."

번안: 성휴 스님, 그림: 이태수

현대 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 영을 직접 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사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 빙의, 퇴마, 최면을 배우실분 •자기최면, 타인최면을 배우실분
-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 종교불문)
-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 최단기간 실전교육
- 최면기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몽땅 상담하세요.
-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 빙의(귀신병) 퇴마, 최면? 100% 전수 - 치유
-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 비염, 발기부전 특효

서울지사 :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251번지
고구려삼계탕 3층 지장사
☎ 02)796-7579

- 부산교육 : 화, 수, 목
- 서울교육 : 금, 토, 일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 장 사** 현오 합장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TEL 051)364-5586 / 010-3056-3315 HTTP://WWW.JIJANGSA24.ORG